2025년 7월 4일 | Global Equity

IonQ (IONQ US)

측정 할 수 없는 밸류를 가진 양자컴퓨터 시대 1등 업체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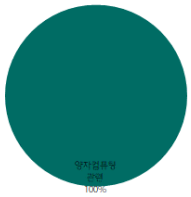
TP(컨센서스)	43.33(USD)
CP(7.2)	44.75(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기술 하드웨어, 스토리
홈페이지	www.ionq.com
시가총액(십억USD)	11.7
시가총액(조원)	15.9
52주최고/최저()	54.74/6.22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8.22
블랙록	6.13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0.3	3.8	524.1
상대	5.4	(2.3)	511.7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43	43	85	166
영업이익	(232)	(232)	(186)	(213)
순이익	(332)	(332)	(209)	(267)
EPS(USD)	(0.8)	(1.6)	(0.6)	(0.7)
EPS(YOY, %)	217.4	100.3	(59.8)	17.7
ROE(%)	(30.0)	(76.3)	(26.0)	(27.0)
PER(배)	-	-	-	-
PBR(배)	5.3	24.1	13.0	17.8
배당률(%)	0.0	0.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이온트랩 기반 양자컴퓨터 업체 IonQ, 양자컴퓨터 시대 1등 업체로 도약 중

IonQ는 이온트랩 기술 기반의 양자컴퓨터를 개발·공급하는 업체이다. 아직 양자컴퓨터 상용화가 시기상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테네시 주의 전력 회사 EPB와 2,2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미 공군연구소와도 양자보안 솔루션 계약을 체결했다. 양자컴퓨터 업체 중 가장 많은 파트너 사를 확보했고, 기술력이 가장 우수하며, 인지도가 높아서 수급상 유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양자컴퓨터 활성화 시대가 온다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향후 12개월 단기 상승률은 100%로 예상하지만, 장기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개발속도, 신뢰도, 확장성, 소형화가 양자컴퓨터 산업 승리자 결정

양자컴퓨터의 경제적 가치나 상용화 여부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건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이다. 양자컴퓨터 구현에는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1개 기술과 그 기술의 주도 업체가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로 다른 시스템이 경쟁할 경우 열위에 있는 시스템이 사장되는 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시장의 수요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냐인데, 개발속도, 신뢰도(오류율), 확장성, 소형화가 주요 키워드이다. 경쟁사보다 앞서 상용화해야 하고, 출시된 제품의 신뢰성이 보증되어야 하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만큼 수만~수백만개 큐빗으로 확장 가능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잠재 고객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엣지 기기로 침투해야 하기 때문이다. IonQ는 신뢰도와 소형화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IonQ가 승리한다면 시가총액 상승률 계산은 무의미할 것

향후 12개월간 IonQ 주가가 9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회사가 본궤도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산업과 회사의 성장성을 높게 감안하여 PSR로 계산했다. 실제로 여러 기업, 지자체와 계약 체결하여 컨센서스 상 '25년과 '26년 매출이 작년의 2배 및 4배에 달한다.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 양자컴퓨터가 창출할 경제적 가치는 8,800억 달러, 한화 1천조원 이상이다. 2024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2~3천억 달러, 올해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7~8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PC와 스마트폰 시장 역시 수천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각 분야 주도 업체를 살펴보자. PC 시대를 연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시대의 아이콘인 애플과 구글, 반도체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6/30 자로 각각 3.7조 달러, 3조 달러, 2.1조 달러, 3.9조달러에 육박한다. 동일자 IonQ 시가총액은 112억달러에 불과하다. 길게 보면 큰 수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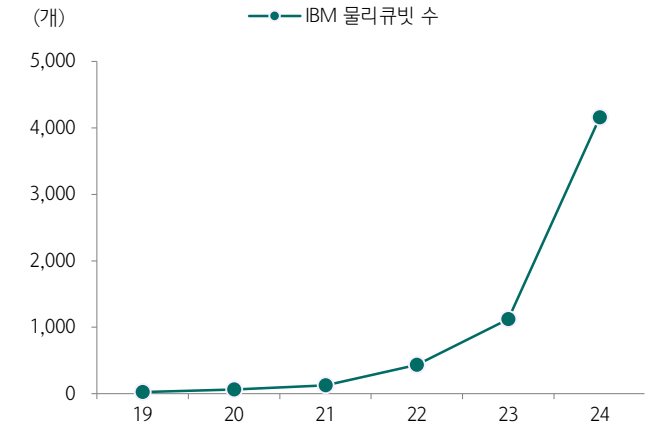
양자컴퓨터 개발 급물살, 해킹 기술 발전

최근 양자기술 급부상, 양자컴퓨터와 양자암호통신에 관심 높여야

최근 주식 시장에서 양자컴퓨터와 더불어 양자암호통신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IonQ/구글/IBM을 필두로 양자컴퓨터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 개발이 생각보다 급속도로 전개 중인 것을 보면 그렇다. 구글은 지난 2024년 12월 양자칩 윌로를 공개하며 큐빗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류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IBM 역시 새로운 양자컴퓨터 오류 보정 코드를 적용한 양자컴퓨터를 개발 중이다. 기존 오류 조정 코드를 적용할 때보다 필요한 물리큐빗의 수가 급감한다. 높은 오류율 때문에 많은 보정용 물리큐빗이 필요했었는데, 대규모 양자컴퓨터 출현 가능성을 앞당겼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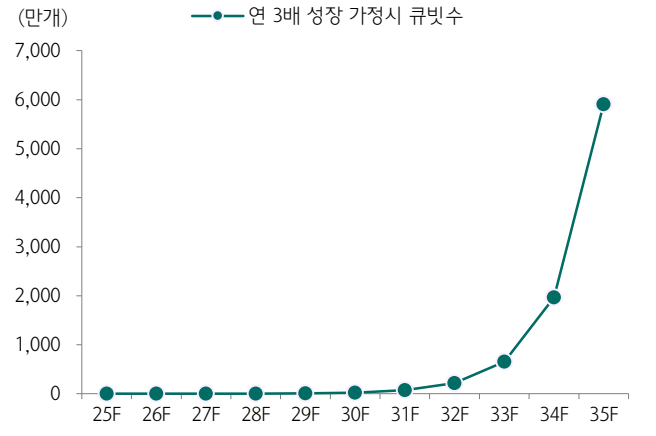
물론 일부에선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완성도 높은 첨단 양자컴퓨터를 범용화한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기업,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희소하고 고가의 양자컴퓨터 도입만으로도 통신 보안 시장에 미칠 파급이 클 것이다. 기존 컴퓨터로는 10억년 걸리던 보안 암호 해독을 수십초~수십분만에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통신 보안이 위험해질 수 있고 이를 막아줄 첨단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 해답은 양자암호통신이다. 양자 컴퓨터가 창이라면 양자암호통신은 방패 역할로서 향후 양자컴퓨터가 발전할수록 양자암호통신에 대한 수요를 늘려줄 것이란 판단이다. IonQ는 양자컴퓨터와 함께 양자암호통신기술을 보유 중이다.

도표 1. IBM 양자컴퓨터 발전 속도



자료: IBM, 언론기사, 하나증권

도표 2. 양자컴퓨터 발전 전망



자료: 하나증권

도표 3. 양자컴퓨터 기술 비교

	슈퍼컨덕팅	트랩이온	포토닉
게이트 시간 (명령 수행 속도)	느림 (게이트 시간 수십~수백 μs)	빠름 (연산은 빠르나 광자 측정이 지연)	
에러율	높음 (에러보정 필수)	낮음 (정밀 제어 가능)	중간 (광자 손실 등 존재)
큐빗간 통신	제한적	높음 (이론상 모든 큐빗 연결 가능)	낮음 (광자간 상호작용이 어려움)
병렬 배치 가능성	높음 (병렬 큐빗 구성 쉬움, 2D 확장성 높음)	낮음 (큐빗 수 늘릴수록 복잡도 급증)	높음
공정 생산성	높음 (CMOS 공정 활용 가능, 단 극저온 상태 필요)	낮음 (이온을 레이저로 제어해야 함. 대량 생산 어려움)	낮음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상용화 선행 필요)

자료: 하나증권

양자컴퓨터 승자는 누가 될까? 키워드는 개발속도, 신뢰도, 확장성, 소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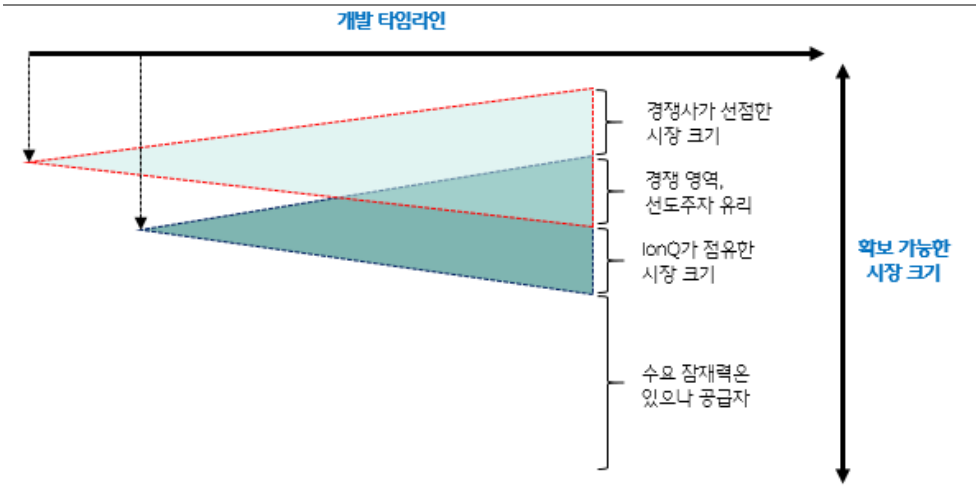
양자컴퓨터 키워드는 개발속도, 신뢰도, 확장성, 소형화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금융, 물류, 제약, 테크를 아우르는 수많은 분야에서 8,8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양자컴퓨터가 크고 매력적인 산업이라면 그 다음으로 파악해야 할 건 어떤 업체가 업종을 주도할 것인가 이다.

관건은 개발속도, 신뢰도(오류율), 확장성, 소형화라고 판단한다. 1) 개발속도: 경쟁사보다 앞서서 시장에 공급해야 하고, 2) 신뢰도: 조금 느리게 상용화되더라도 제품의 신뢰성이 보증되어야 하며, 3) 확장성: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수요처에서 사용 가능하게끔 수만~수백만 큐빗을 만들어야 하고, 4) 소형화: 궁극적으로 시장을 넓히려면 소형화를 통해 잠재 고객을 기업체, 정부에서 일반 소비자로까지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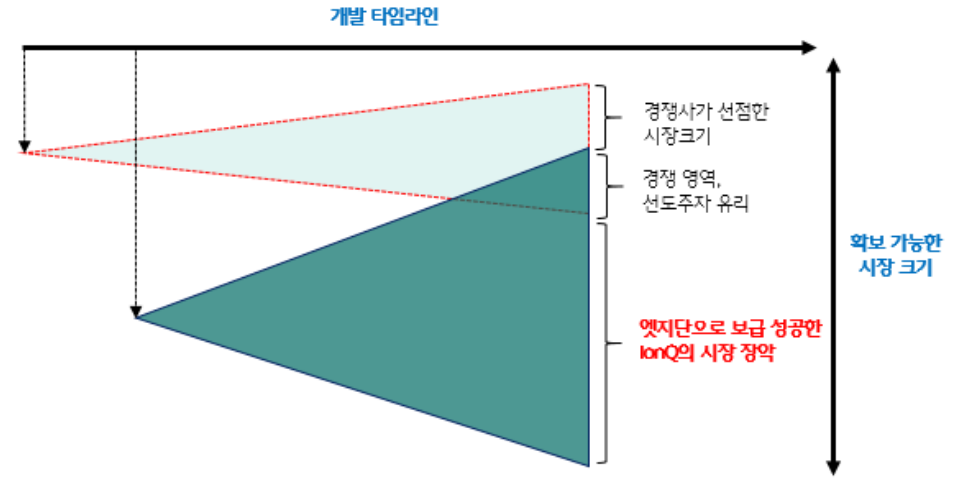
주요 업체인 IonQ와 IBM의 큐빗 속도는 아직까지는 비슷하다. IBM의 Heron이 133큐빗이고, IonQ의 Tempo는 64큐빗이다. IonQ의 경우 실제 연산에 적용된 큐빗만 포함시켜서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도표 4. IonQ의 소형 보급화 지연될 경우 시나리오 도식



자료: 하나증권

도표 5. IonQ가 소형 보급화 성공할 경우 시나리오 도식



자료: 하나증권

정확도와 효율성이 높은 IonQ의 이온트랩 양자컴퓨터

IonQ의 이온트랩 방식은 태생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효율성 제공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오류율이 높으면 의미가 없다. 오류율을 보정해줄 물리 큐빗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더 많은 물리 큐빗이 필요할수록 효율성 감소로 이어진다. 이온트랩 방식은 진공 안에 이온을 가둔 후 레이저를 쏴서 에너지 준위를 조정한다. 에너지가 들뜬 상태인지 바닥 상태인지에 따라 0과 1을 부여한다. 이온은 진공 안에서 진동하는데, 이온들이 서로 공진하게 하여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든다. 이 때 양자 얽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해서 공진이 느리다. 즉, 연산 속도는 느려지지만 안정성이 향상되고 오류율이 낮아진다.

이온이 공진하기 때문에 모든 이온은 서로 연결(All-to-All Connectivity)된다. 즉, 모든 이온이 상호 얽힘 상태가 되고, 이론상 연산 처리량(Capa)이 극대화된다. 거쳐야 하는 과정(게이트)이 1) 레이저 쏘기, 2) 공진 만들기 2단계에 불과해서 게이트가 적다(게이트 2개). 그리고 모두 연결된 만큼 경로가 많아서 여러 얽힘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연산을 한 층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데, 이를 "연산 깊이가 낮다"라고 표현한다. 게이트가 적고 연산 깊이가 낮아서 오류율이 낮다. 단, 큐빗 수가 많아질수록 공진 구현 난이도, 복잡성, 에러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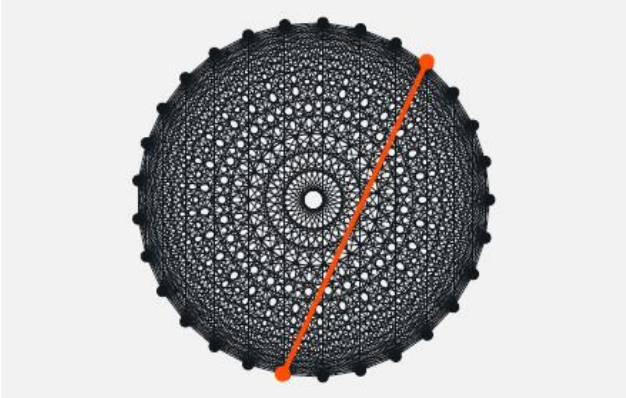
반면 슈퍼컨덕팅은 인접한 큐빗끼리만 얽힌다. 연산 캐파가 낮은데, 인접 큐빗을 거쳐가는 방식으로 얽힘 상태를 만들어 연산 캐파를 올릴 수는 있다. 단, 이렇게 하면 한 번 거칠 때마다 과정(게이트)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인접 큐빗끼리만 연결되는 격자 구조 특성 상 경로가 제한된다. 이온트랩에 비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양자 얽힘이 제한적이다. 1개 층에서 같이 작업(연산)을 하지 못한단 뜻이다. 따라서 작업을 위해 여러 층이 필요한데, 이를 "연산 깊이가 깊다"라고 말한다. 필연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작업에 필요한 깊이(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오류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도표 6. 이온트랩 vs 슈퍼컨덕팅 비교표_IonQ 제시

	이온트랩 방식	초전도체 방식
Fidelity (신뢰성)	99.9% ↑	Varies
Connectivity	All-to-All	Nearest Neighbor
Error Correction	에러 조정 13:1	에러 조정 100:1
Coherence	Longest Qubit Lifetime	Shorter Qubit Life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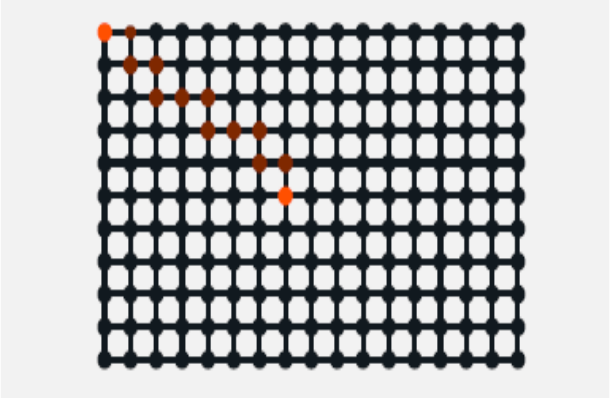
주: 결맞음(Coherence), 양자 중첩 상태가 유지되는 정도
자료: IonQ, 하나증권

도표 7. 이온트랩 All-to-All Connectivity 구조



자료: IonQ, 하나증권

도표 8. 슈퍼컨덕팅 격자 구조



자료: IonQ, 하나증권

결국 관건은 소형화를 통한 보급율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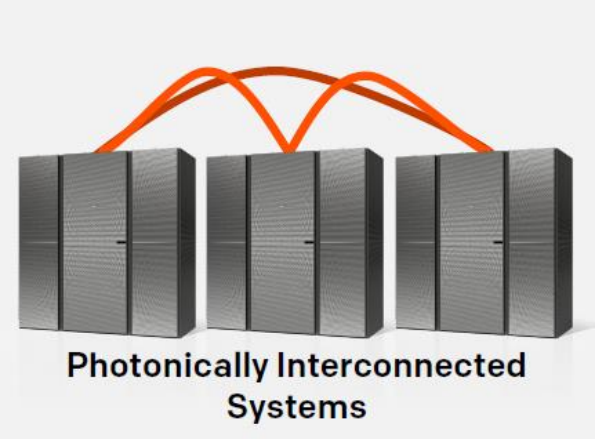
IonQ는 광학 연결을 통한 모듈 병렬화 연구 진행 중

한편 낮은 효율성과 신뢰도 문제를 모듈의 병렬 연결로 해결 가능하다. 모듈을 수십개 연결하는 방식이다. 신뢰도가 낮아도 더 많은 큐빗을 병렬로 연결해 쓸 수 있다면 상용화에 필요한 큐빗 수(수만개~수백만개 단위) 구현이 가능해진다. IonQ는 모듈을 광학 연결해서 병렬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포토닉 인터커넥트라고 부르는 기술로, 경쟁사인 IBM과는 다른 방식의 병렬 연결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위해 올해 Lightsynq를 인수하기도 했다.

시장 확보를 위해선 소형화가 필수, IonQ는 적극적으로 소형화와 원가절감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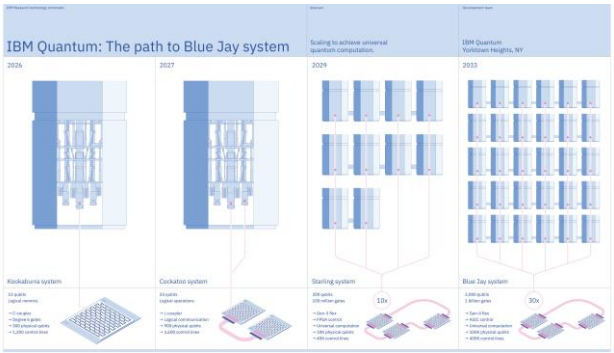
또 다른 핵심은 소형화다. 현재까지 개발된 양자컴퓨터 모듈은 방식을 막론하고 너무 커서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설치하거나 클라우드 형태로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확보 가능한 시장이 제약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크기를 작게 하고 단가를 낮춰야 한다. 이 점에서는 IonQ의 이온트랩 방식이 앞서 있다. 슈퍼컨덕팅 방식은 냉동 시설과 냉동가스 보관시설이 필요한데, 모듈 1개 당 컨테이너 급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온트랩 역시 레이저 설비, 진공 설비 등이 필요하지만 이미 소형화 기술들이 있다. IonQ가 소형화와 원가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점도 긍정적이다. 관건은 어떤 업체가 소형화를 통해 민간 보급을 성공하느냐로 갈릴 것이다.

도표 9. IonQ 모듈 병렬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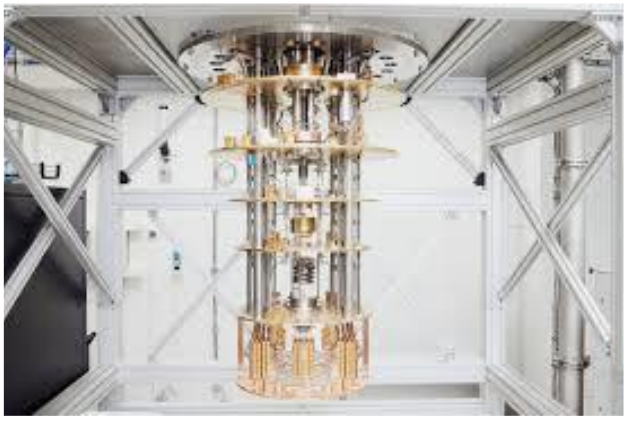
자료: IonQ, 하나증권

도표 10. IBM 모듈 병렬 연결



자료: IBM, 하나증권

도표 11. IBM 모듈(샹들리에)과 극저온 냉동고



자료: IBM, 하나증권

도표 12. IonQ 레이저 기기

자료: IonQ, 하나증권

안개가 걷히면 IonQ의 진면목이 드러날 거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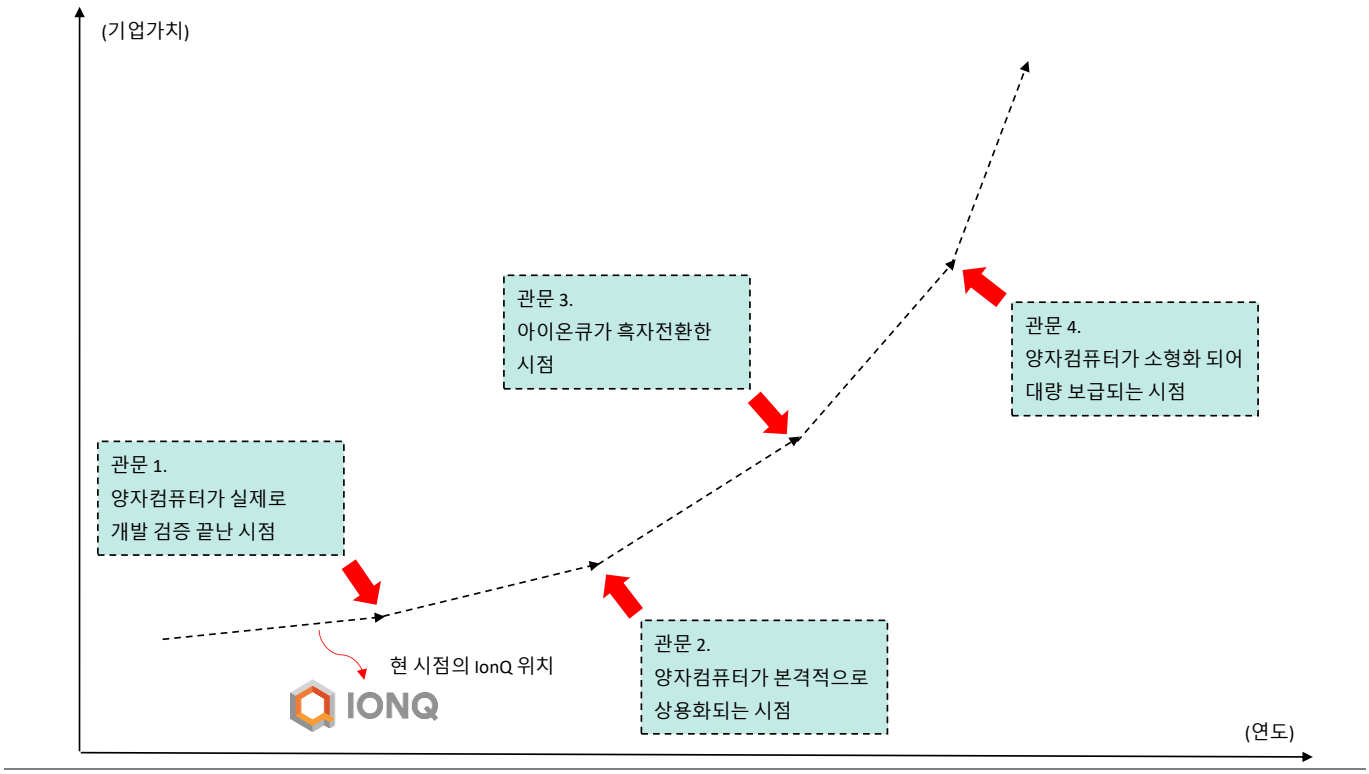
IonQ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요인은 넘어야 할 불확실성들 때문

양자컴퓨터의 경제적 잠재력에 비하면 IonQ의 기업가치는 낮은데, 넘어야 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양자컴퓨터의 개발 가능성에 회의를 가진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설령 개발 가능하더라도 대학 실험실이나 빅테크 연구 부서의 연구 기기가 아닌 제대로 된 제품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일 것이다. 상용화에 성공하여 고객을 확보한다 해도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지속적인 성장 모형을 갖추는 건 또 별개이다. 이후 양자컴퓨터가 PC, 모바일, 반도체처럼 수백~수천조원 규모 시장 규모로 성장할 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IonQ는 첫번째와 두번째 관문 사이에 있다. 그렇게 보면 주요 변곡점으로 작용할 사건이 3개가 있을텐데, 1) 양자컴퓨터의 상업적 실용성이 완전히 인정받는 순간이다. 예컨데 RSA-2048이 무용화되면 더 이상의 상업성 논란은 없을 것이다. 2) IonQ가 흑자전환하며 대규모 이익 성장을 시현할 때가 두번째 변곡점이다. 3) 마지막 시점은 양자컴퓨터 소형화를 통해 수천조원 규모로 시장 확대가 가능함을 입증한 때이다. 이런 변곡점은 과거 PC와 모바일의 아이콘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및 애플의 주가 추이와도 비슷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는 제품의 혁신성 못지않게 수익화 전략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PC 보급이 끝난 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 닷컴버블이 끝난 '00년 23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는데 '17년까지도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횡보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Azure, 오피스 과금 전략 변화 등을 통해 기존 PC를 사용한 수익 창출 전략을 만들어내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18년 2023년 매출 1,100억 달러를 기록하고 불과 5년 뒤인 '23년 매출 2,119억달러로 2배 성장했다. 이 시기 주가 역시 급등하였다. 닷컴버블, PC 도입 초기 당시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률 높은 편이긴 했으나, 단순히 신산업 개화만으로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부족한 것을 입증한다.

도표 13. IonQ의 기업가치별 불확실성 해소요건 예시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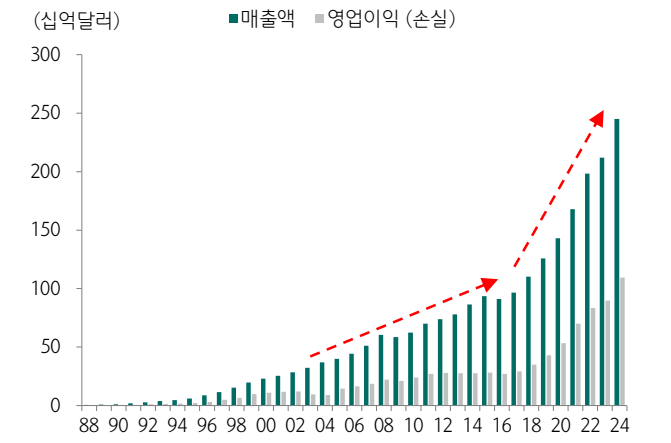
수익화&시장 확대 성공한 애플의 주가는 계속 우상향

애플도 비슷하다. 아이폰 출시한 초기에 주가 반등했었다. 당시 기준으론 급등이긴 했으나 상승 모멘텀이 약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애플은 지속적으로 모바일 생태계의 수익화 전략을 실현했다. 아이패드, 에어팟 등 연계 제품 출시하며 모바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애플의 영역으로 점령해나갔다. 덕분에 실적 성장세는 매우 가팔랐다. '05년 매출액 139억 달러에서 불과 6년 뒤인 '11년 1,082억 달러, 천억 달러 매출을 돌파했다. 주가 역시 비례하여 계속 우상향 했다. 두 기업의 사례를 보자면 혁신적인 제품의 최초 출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수익화와 시장 확대가 주가 상승세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요인임을 알게된다.

IonQ가 수익화 및 양자컴퓨터 시장 확장 전략 수립 성공하면 궁극적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의 기업가치를 받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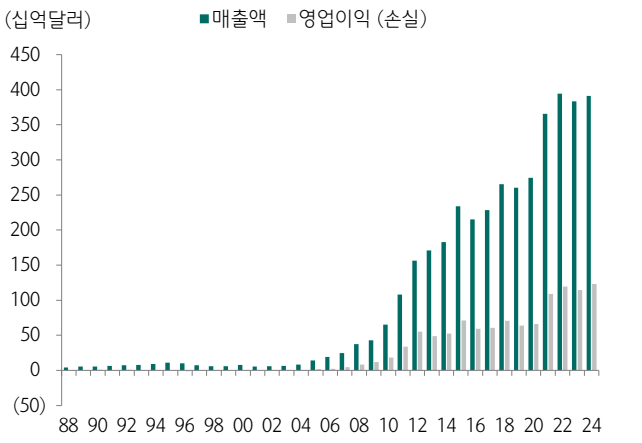
두 사례를 IonQ의 주가 양상에 적용해보자. PC 초기 시점 및 아이폰 첫 출시 시점이 양자컴퓨터가 실제로 제약사나 물류사에 공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양자컴퓨터가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제품 출시만으론 모멘텀 지속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후 양자컴퓨터 공급이 확산되며 IonQ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시점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화 전략, 애플의 신제품 연쇄 출시 시기와 일치한다. 궁극적으로는 양자컴퓨터가 민간 수준으로 보급이 되며 단순히 돈이 되는 제품이 아니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제품임을 입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현 가치 수준으로 급등이 예상된다.

도표 14.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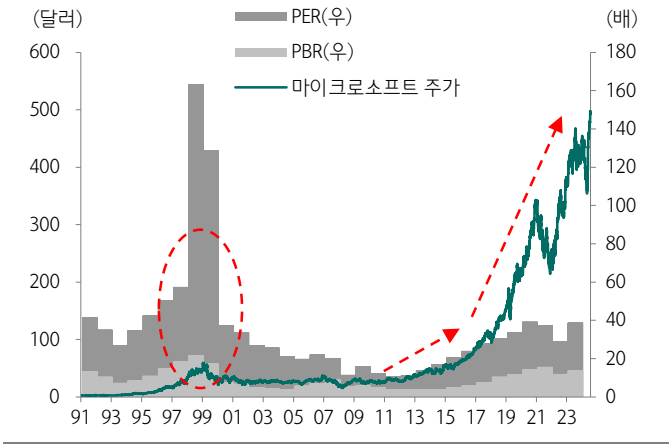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5. 애플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6.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및 멀티플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7. 애플 주가 추이 및 제품 출시 시기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USD)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43	43	43	85	166
매출총이익	8	14	22	47	99
판관비	94	172	255		
영업이익	(232)	(232)	(232)	(186)	(213)
이자 비용	0	0	0		
기타영업손익	(37)	(0)	99		
세전이익	(49)	(158)	(332)		
법인세	0	0	0		
소수주주이익	0	0	0		
특별손실	0	0	0		
당기순이익	(332)	(332)	(332)	(209)	(267)
성장율(YoY)					
매출	0.0	0.0	0.0	97.6	95.4
영업이익	0.0	0.0	0.0	(20.2)	14.7
순이익	0.0	0.0	0.0	(36.8)	27.5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73.6	63.2	52.2	55.4	59.4
영업이익률	(770.3)	(715.7)	(539.7)	(218.0)	(127.9)
순이익률	(435.8)	(715.8)	(770.0)	(246.0)	(160.5)

주: GAAP 기준. 예상치는 Bloomberg 시장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USD)

	2020	2021	2022	2023	2024
유동자산	39	530	372	390	379
현금성자산	36	399	44	36	54
매출채권	0	1	3	11	7
비유동자산	22	112	226	164	130
투자자산	0	80	182	100	24
유형자산	16	23	30	42	62
자산총계	508	508	508	508	508
유동부채	2	10	20	36	36
비유동부채	5	41	10	31	88
부채총계	7	51	30	69	125
자본금	93	737	770	839	1,067
이익잉여금	(40)	(146)	(202)	(354)	(684)
자본총계	54	591	568	485	384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주당지표(SEK)					
EPS	(0.2)	(0.8)	(1.6)	(0.6)	(0.7)
BPS	2.8	2.3	1.7	3.5	2.5
SPS	0.1	0.1	0.2	0.3	0.5
DPS	0.0	0.0	0.0		
주가지표(배)					
PER					
PBR	1.2	5.3	24.1	13.0	17.8
EV/EBITDA					
PSR	61.3	113.9	206.6	137.5	70.4
배당수익률(%)	0.0	0.0	0.0		
재무비율(%)					
ROE	(8.4)	(30.0)	(76.3)	(26.0)	(27.0)
ROA	(7.8)	(27.4)	(62.5)	(20.4)	(18.8)
ROIC	(14.6)	(29.5)	(51.7)		
부채비율	0.7	1.7	4.6		
유동비율	18.4	10.5	10.5		
이자보상배율(배)					

주: EPS는 Bloomberg 조정치. 예상치는 Bloomberg 시장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USD)

	2020	2021	2022	2023	2024
영업활동 현금흐름	(12)	(27)	(45)	(79)	(106)
감가/무형상각비	1	3	6	10	19
비현금자본증감	1	2	(2)	(14)	(16)
투자활동 현금흐름	(12)	(214)	(309)	69	83
유형자산처분	0	0	0	0	0
유형자산취득	(10)	(8)	(9)	(14)	(22)
투자자산증감	0	0	310	387	0
재무활동 현금흐름	0	603	1	2	42
배당금	0	0	0	0	0
단기부채증감	0	0	0	0	0
장기부채증감	0	0	0	0	0
자본금증감	0	4	(1)	2	41
잉여현금흐름	(22)	(34)	(54)	(93)	(128)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7월 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5년 7월 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